앤서니 J. 토마시노 박사, 십계명
세션 10: 계명 9 - 거짓 증언 금지

앤서니 J. 토마시노 박사님의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0번째 세션, 아홉 번째 계명, 거짓 증인 금지입니다. 이제 아홉 번째 계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초등학교 시절, 주일학교에서 저는 가끔 좀 문제아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십계명을 가르치시더군요.

십계명을 전부 적은 작은 도표에서 우리는 아홉 번째 계명에 도달했는데, 바로 "거짓말하지 말라"였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처럼 잘난 체하며 물었습니다. "스미스 선생님, 스미스 선생님, 만약 집에 혼자 있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며 '도끼를 든 사람이 쫓아온다. 숨겨주세요, 숨겨주세요, 제발'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옷장에 숨겨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와서 문을 쾅 닫고 도끼를 들고 왔어요. "그녀는 어디 있지? 여기 들어왔어? 뭐라고 해야 하지? 진실을 말해야 하나?"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 남자가 "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네, 그러면 불쌍한 어린아이가 정말 곤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도끼를 들고 그 남자를 빤히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건 거짓말이니까요. 그리고 그건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다행히 이 계명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번역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 계명이 다루려고 의도한 바가 아닌 많은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계명의 실제 표현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사실, 거짓 증언은 상당히 제한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법정 분위기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서 전달되는 주요 아이디어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 부분은 십계명 전체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라, 모세오경, 그리고 그 너머의 선지서와 신약 성경에서도 자세히 다뤄집니다. 하지만 이 특정 사건의 표현은 법정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위증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 사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이해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거짓 증언이라는 개념이 고대 근동의 여러 법전에서 강박관념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르남무의 법전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출두하여 위증죄로 판명되면, 그는 은 15셰겔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 이건 다른 구절들에 비하면 아주, 아주 관대한 규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출두하여 선서를 철회하면, 그는 사건의 가치와 소송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네, 제 말은, 우르남무 법전은 이 사건에 아주 관대했습니다. 함무라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함정에 빠뜨린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고발하고 함정에 빠뜨렸는데,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형에 처해집니다. 누군가 누군가를 고발했는데, 피고인이 강에 뛰어들어 강물에 빠지면 고발자가 그의 집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강을 통한 재판입니다.

아시다시피, 강의 신이 무죄를 선고한다는 개념이죠. 하지만 만약 강이 피고인이 무죄임을 증명하고 그가 다치지 않고 탈출하면, 고발한 자는 사형에 처해지고, 강에 뛰어든 자는 고발자의 집을 차지하게 됩니다. 고대 바빌론에 살고 있다면 YMCA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장로들 앞에 어떤 범죄를 고발하고 그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만약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사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구약 성경의 입장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원전 1750년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모세 시대보다 최소 350년, 아마도 500년 가까이 앞선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르남무와는 달리, 함무라비 법전은 누군가를 고발하고 사형을 선고했다고 증언함으로써 그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려면 반드시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토라, 레위기 19장에도 매우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십계명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고 해설하며 자세히 설명합니다. 오늘 아침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이것이 바로 계명이다.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법정에서 불의를 행하지 말라.

너는 가난한 자라고 편파적으로 대하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며, 공의로 네 이웃을 재판하고, 네 백성 가운데에 돌아다니며 중상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웃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 곧 그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고발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다. 신명기 19장에 따르면, 악의적인 증인이 일어나 어떤 사람을 악행으로 고발하면, 그 분쟁의 당사자들은 모두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한다.

주의하세요, 그들은 강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 앞, 아마도 장막이나 그런 종류의 것 앞, 즉 여호와 앞에 가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서, 재판관들은 부지런히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인이고 그의 형제를 거짓으로 고발했다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 했던 대로 그에게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함무라비 법전과 매우 유사합니다.

만약 당신이 거짓 증언으로 이웃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면, 결국 당신은 재산을 빼앗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거짓 고발로 이웃을 죽이려 했다면, 당신은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원칙은 교실, 여기, 또는 법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이라는 개념은, 비록 그 언어가 법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언어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법정에서의 증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만요. 사실, 우리는 여기서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레위기 19장의 그 구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계명의 주된 의도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사실 이 계명은 거짓말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아직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시죠, 누군가의 아이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는데, 그 아이가 "정말 예쁘네요."라고 하면, 당신은 " 오, 맞아요, 정말 멋지네요. 당신은 재능이 많으시네요."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악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짓은 죄가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래, 여보, 대학 때보다 지금이 훨씬 잘생겼어."라고 말한다면요.

아시다시피, 그녀가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녀가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이건 거짓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웃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염두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토라에서 십계명을 확장하는 다른 구절들을 볼 때, 십계명 역시 확장됩니다. 토라는 이 기본 원칙에서 여러 가지 다른 적용을 이끌어냅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법의학적 적용으로 돌아가 봅시다. 바로 위증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죠. 아시겠죠? 위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이미 읽었습니다. 위증의 결과는 이웃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모아서 누군가를 상대로 증언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외경에 다니엘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다니엘서에 덧붙여진 부분에서, 예언자보다는 탐정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음탕한 두 노인이 젊고 덕망 있는 여인을 염탐하다가, 그 여인을 협박하여 자신과 동침하게 하는 거래를 하기로 합니다.

그들이 하는 짓은, "우리 둘이서 그녀가 자기 마당에서 간통하는 걸 봤다고 증언하면 사형에 처할 거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녀를 협박해서 우리와 자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남자가 같이 가서 그 여자에게 ″우리와 자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간통했다″고 할 거라고 하죠.

그러자 그 여자는 ″아니요, 저는 당신들에게 제 덕을 바치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고, 남자들이 모여들고, 군중이 모입니다. 그들은 그 여자가 동산에서 간음하는 것을 보고 그 젊은이가 도망쳤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서 매우 젊은 남자로 묘사되고, 마침 군중 속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당신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뭘 할지 말해 봐. 이 두 남자를 떼어 놓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 남자를 따로 데려가서 ″그들이 간음하는 것을 어디서 봤어?″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아, 바로 저 나무 아래에 있었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남자를 데려와서, 그 문제를 제기하며, ″그 두 사람이 어디에서 간통을 저질렀는지 말해 보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 바로 저쪽 나무 아래에 있었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남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남자들은 처형당하고, 그 젊은 여자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모든 백성의 눈에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추대됩니다.

그러니까 위증이 정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사례라는 게 분명합니다. 성경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반드시 두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이유 중 하나죠. 한 사람만으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때로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야기를 바로잡은 후 누군가를 고소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나발의 포도원 이야기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의 이웃이 있었는데, 아합 왕은 그 이웃의 포도원을 마음에 들어 했고, 그 이웃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은 자신의 포도원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이라는 이유로 팔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 왕비는 아합이 뚱한 표정으로 샐쭉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야, 아합, 얘야?″라고 물었고, 아합은 ″아, 저 못된 늙은 이웃이 그 포도원을 보여주지 않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 왕비는 두 사람에게 뇌물을 주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봇은 돌에 맞아 죽고, 아합은 그의 재산을 차지했습니다.

아합에게는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은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증언으로 누구도 사형을 선고받을 수는 없었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듯이 그 결과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기로 결심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요구 조건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계명을 사람들이 하는 서약, 즉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약속으로 여겨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위증죄에 대한 처벌, 다시 말해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받았을 처벌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명기에서 이에 대해 읽었습니다. 이것이 법의학적 적용입니다.

법정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도덕적 적용은 이제 단순히 상대방을 해치려는 의도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어느 쪽으로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거짓 증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거짓 진술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은 히브리어로 단순히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증언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포함한 구약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진전시키기 위해 때때로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위안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사라가 자기 아내인지 누이인지에 대한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기꺼이 거짓말을 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의 딸 미갈은 다윗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2장에 아주 기이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셔서 아합 왕을 몰락시키고 파멸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네, 물론 우리는 진실이 허구보다 낫다고 믿고 싶지만, 선한 의도로 한 거짓말이 단순히 진실이지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도덕적인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정죄합니다.

이것은 성경, 시편,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잠언 전반에 걸쳐 매우 흔한 주제입니다. 거짓은 반복적으로 비난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의학적 접근법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대인 관계 문제는 어떨까요? 레위기 19장은 이 계명에 대해 논평하고 확장하면서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남의 말을 퍼뜨리거나 험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이 구절에서 "험담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라킬'입니다.

라킬은 거짓된 이야기를 의미할 수도 있고, 진실된 이야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누군가에 대해 험담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짓된 이야기일 필요는 없습니다. 험담은 비밀을 드러내지만, 신뢰할 만한 영은 비밀을 지켜줍니다.

여기서는 명사형인 '라킬'이 '라킬'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동사형이 아니라 명사형입니다. 하지만 잠언 16장 28절에 따르면, 문제를 일으키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수군거리는 자는 가장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가장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을까요? 드러내서는 안 될 것, 비밀로 간직해야 할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진실들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설령 진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절의 엄격한 해석은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구절이 말하는 내용에 대한 성경적 증거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짓말뿐 아니라 험담도 포함되죠. 제 말이 믿기 어려우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세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처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십계명, 맞죠? 간음, 음행도 십계명에 포함되죠. 네, 그것도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절도, 십계명, 거짓 증언, 그리고 중상모략.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증언이라는 개념을 넘어, 아홉 번째 계명을 거짓말과 위증뿐 아니라 소문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하셨습니다. 험담은 매우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십이 진짜이거나 사실이라기보다는 거짓이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때때로 그 문제가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가십을 즐깁니다.

하지만 제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목사셨는데, 할아버지가 사목하시던 교회 중 한 곳에서 한 여성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게르트 자매가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기도회 후에 하스킨스 목사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의심스러운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친밀해 보였죠, 그렇죠?결국 그 소문이 할아버지의 귀에 들어갔고, 할아버지는 교회 전체에 게르트 자매를 집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사실 그의 아내, 제 할머니라고 알렸습니다. 글쎄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도 소문과 가십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당연히 할머니가 게르트 자매를 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그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죠. 마치 아는 척하고, 이야기를 퍼뜨리는 걸 좋아하는 한 여성 때문에 교회 사역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왜 사람들이 험담을 좋아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일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무엇이 소문을 빠르게 퍼뜨리는지, 어떤 것들이 소문을 방해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사람들이 소문을 믿게 만드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 자체의 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이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든 자신들을 특별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찰스 앨런은 몇 년 전에 『신의 정신의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 그 책에는 매우 흥미로운 관찰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 중 하나는, 좀 걱정스럽고 가끔 입술을 삐죽 내밀고 있을 때 생각하게 만드는, 위대한 사람은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평범한 사람은 사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소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는 많은 지혜와 약간의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문이 어떻게 퍼지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마 이 광고를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네요. 1980년대 초에 나온 광고였죠.

샴푸 광고가 있었는데, 여기서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광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친구 두 명에게 Sub-Z 샴푸를 소개했고, 친구 두 명도 소개했고, 또 ...

그런데 일요일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샴푸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두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그 친구들이 월요일에 두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그 친구들이 화요일에 두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또 수요일에 두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2주 후에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Sub-Z 샴푸에 대해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누군가는 머릿속으로 아주 빨리 계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실제로 수치를 계산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해 봐야 했어요.

하지만 그 숫자는 31,967명입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만 소문을 전한다면, 2주 만에 거의 32,000명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만 전한 소문을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한 달 후면 시카고 전체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종형 곡선의 힘이죠. 자, 이제 정말,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냥 "내 새 샴푸 좀 봐"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흥미로운 가십거리라고요.

두 사람에게만 말하는 걸로 누가 만족할까요? 아니요, 금방 퍼질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파괴적인 소식을 조금 공유하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까요?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보. 기도해 달라고요. 랍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소문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설이었어요.

이야기에 따르면, 야코프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일로 동네 랍비에게 몹시 화가 나서, 랍비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야곱이 잘 알지 못하는 한 남자가 거리에서 야곱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 그는 야곱을 옆으로 불러 "야콥, 우리 랍비가 얼마나 술주정뱅이인지 들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기 소문을 듣고 약간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잘못을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하느님께 용서받으려면 참회 행위를 해야 한다. 얼마나 뉘우치는지 보여주는 일을 해야 한다. 참회의 첫 단계는 바로 이것이다."

베개를 가져다가, 크고 새 깃털 베개를 잘라서 깃털을 제거해라. 그리고 그 깃털을 가져다가 네 소문이 퍼진 마을의 모든 집 현관에 하나씩 놓아라. 그리고 나흘 후에 내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네게 남은 보속을 주겠다.

야곱은 깊이 뉘우치며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는 베개를 가져다가 잘라서 각 집 현관에 깃털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깃털이 각 집 현관에 놓여 있도록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이 지나가고,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폭풍이 몰아쳤지만, 넷째 날은 화창하고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랍비의 집으로 돌아가 랍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랍비가 입을 열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랍비님,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자, 나머지 절반은 뭐죠? 제 속죄의 절반입니다."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가서 그 깃털들을 모두 모아서 다시 제자리에 놓고 베개를 예전처럼 만들어라."

야곱은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랍비님, 당신이 요청하신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그는 "당신 말씀은 불가능합니다. 베개를 예전처럼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해를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깃털은 멀리, 그리고 널리 흩어졌습니다. 랍비는 말합니다. "이제 내 아들아, 네 말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거다."

당신의 말은 널리 퍼져 나갔고, 그로 인해 생긴 피해는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험담은 즐거운 활동이며, 많은 사람들이 무해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 하는 말에 신중해야 합니다. 단지 거짓말이나 누군가의 평판을 망칠 수 있는 반쪽짜리 진실에 대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중얼거리는 진실, 우리 자신에게만 간직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는 진실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날아올라 예상치 못한 곳으로 날아가거나, 심지어 우리 집 문 앞에 돌아와 우리에게 당혹감을 안겨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익한 말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이 아홉 번째 계명의 핵심 원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위증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그 말이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더 큰 원칙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앤서니 J. 토마시노 박사님의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0번째 세션, 9계명 - 거짓 증언 금지입니다.